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좌우에 탁자 놓아 만권 서책 쌓아 놓고

㉠자명종과 자명악은 절로 울어 소리하며

좌우에 당전(唐氈) 깔고 담방석과 백전요며

㉡이편저편 화류교의(樺榴交椅) 서로 마주 걸터앉고

[A] 거기 사람 처음 인사 차 한 그릇 갖다 준다
화창중에 대를 받쳐 가득 부어 권하거늘
파르스름 노르스름 향취가 만구하데
저희들과 우리들이 언어가 같지 않아
말 한마디 못 해 보고 덤덤하니 앉았으니
귀머거리 병어린 듯 물끄러미 서로 보다
천하의 글은 같아 필담이나 하오리라
당연(唐硯)에 먹을 갈아 양호수필(羊毫鬚筆) 덩뻑 찍어
시전지(詩箋紙)를 빼어 들고 글씨 써서 말을 하니
묻는 말과 대답함을 글귀 절로 오락가락
간담을 상응하여 정곡(情曲) 상통(相通)하는구나

(중략)

[B] 황상이 상을 주사 예부상서 거행한다
삼 사신과 역관이며 마두와 노자(奴子)까지
은자며 비단 등속 차례로 받아 놓고
삼배(三拜)에 구고두(九叩頭)*로 사례하고 돌아오니
상마연* 잔치한다 예부에서 지휘하기로
삼 사신과 역관들이 예부로 나아가니
대청 위에 포진하고 상을 차려 놓은 모양
메밀떡에 밀다식에 겔밤 머루 비자(櫃子) 등물(等物)
푸닥거리 상 벌이듯 좌우에 떠벌였다
다 각기 한 상씩을 앞에다 받아 놓으니
비위가 뒤집혀서 먹을 것이 전혀 없네
삼배주를 마시는 듯 연파(宴罷)하고 일어서서
뜰에 내려 북향하여 구고두 사례한 후
관소로 돌아와서 회환(回還) 날짜 택일하니

㉢사람마다 짐 동이느라 각 방은 분분하고

흥정 외상 셈하러 주주리는 지저권다

㉣장계(狀啓)를 발정(發程)하여 선래 군관(先來軍官) 전송하고

추칠월 십일일에 회환하여 떠나오니

한 달 닷새 유하다가 시원하고 상연(爽然)하구나

천일방(天一方) 우리 서울 창망하다 갈 길이어

풍진이 분운(紛紜)한데 집 소식이 돈절하니

사오 삭(朔) 타국 객이 귀심(歸心)이 살 같구나

송문문 내달아서 통주로 향해 가니

㉤올 적에 심은 곡식 추수가 한창이요

서풍이 샅샅하여 가을빛이 꽤히 난다

- 홍순학, 연행가 -

- | |
|---|
| * 구고두 : 공경하는 뜻으로 머리를 땅에 아홉 번 조아림.
* 상마연 : 일을 마치고 떠나가는 외국 사신들을 위하여 베풀던 잔치 |
|---|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의 경이로운 풍광에 대한 감상을 장황하게 서술하고 있다.
- ② 학문과 관련된 사물을 나열하여 입신양명에 대한 화자의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객지에서의 낯선 풍물 및 경험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고 회환할 때의 심정을 서술하고 있다.
- ④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한 다양한 사람들의 외양과 감정을 개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구체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제시하여 귀국까지의 여정이 마무리되었음을 알려 주고 있다.

44.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이 지닌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 ② ㉡ : 지시적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와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이동을 앞둔 여유로운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④ ㉣ :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새로운 계책을 마련한 기쁨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시간의 경과를 보여 주고 있다.

45. [A], [B]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에서 '간담을 상응하여'는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을, [B]에서 '뜰에 내려 복향하여'는 상대방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는군.
- ② [A]에서 '우리들'은 '거기 사람'에게 인사로 차를 대접받고, [B]에서 '삼 사신' 일행은 '예부상서'를 통해 황상의 상을 하사받고 있군.
- ③ [A]에서 '필답'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수단을, [B]에서 '구고두'는 의례적 상황에서 감사를 표하는 공식적 예법을 나타내는군.
- ④ [A]에서 '글귀 절로 오락가락'은 난처한 상황이 해소되고 있음을, [B]에서 '비위가 뒤집혀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드러내는군.
- ⑤ [A]의 '귀머거리 병어린 듯'은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B]의 '메밀떡에 밀다식에 걸밤' 등은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 놓은 상황을 알려 주는군.

① EBS 연계의 활용

- 당시 이 작품은 EBS에 수록된 연계 작품이었다. 사실 연계가 아니어도 연행가가 교과서에 많이 수록되어 있는 편이라서 대강 주제를 ‘중국에 사신으로 다녀온 이야기’라는 정도는 잡아놓은 채로 작품에 접근했을 것이다. 70프로 이상의 학생들은 적어도 그렇다.

그리고 평가원은 저 정도만 알아도 풀 수 있게 문제를 출제한다.

풀고 안 풀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얼마나 빨리 푸는지가 이 지문 세트의 Key Point다.

만약 이 세트를 5분만에 풀고 다 맞았다고 ‘고전 시가는 나한테 낌이지~’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너 말고 우리나라의 다른 90프로들도 다 맞춘 문제니까.

그래서 나는 EBS에서 긴 고전 시가, 여러 편의 이야기가 있는 장편 소설 등은 전체적 흐름 + 부분적 흐름까지 함께 공부하기를 권한다. 그래야 더 디테일하게 알아서 빨리 풀 수 있으니까.

2018학년도 수능에서 출제된 이문구의 ‘관춘수필’도 그렇다.

관춘수필은 총 8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큰 주제 안에서 다른 이야기를 다룬다. (시대도 다름)

실제로 출제된 ‘여요주서’ 편이 어떤 내용과 주제와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아는 사람이 당연히 ‘농촌의 비애’라고 외운 학생들보다 빨리 풀게 된다.

EBS는 이처럼 ‘속도’의 측면에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어차피 다른 사람도 다 아는 것을 똑같이 공부하면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 차이가 없으면 점수의 변화도 없다. 시간을 잡아라.

② 지문 해설

좌우에 탁자 놓아 만권 서책 쌓아 놓고

㉠자명종과 자명악은 절로 울어 소리하며

좌우에 당전(唐氈) 깔고 담방석과 백전요며

㉡이편저편 화류교의(樺榴交椅) 서로 마주 걸터앉고

거기 사람 처음 인사 차 한 그릇 갖다 준다

화창중에 대를 받쳐 가득 부어 권하거늘

파르스름 노르스름 향취가 만구하데

저희들과 우리들이 언어가 같지 않아

말 한마디 못 해 보고 덤덤하니 앉았으니

귀머거리 병어린 듯 물끄러미 서로 보다

천하의 글은 같아 필담이나 하오리라

당연(唐硯)에 먹을 갈아 양호수필(羊毫鬚筆) 덩뼉 찍어

시전지(詩箋紙)를 빼어 들고 글씨 써서 말을 하니

묻는 말과 대답함을 글귀 절로 오락가락

간담을 상응하여 정곡(情曲) 상통(相通)하는구나

지문이 상당히 길다. 중략 이전과 중략 이후로 나누어서 보자.

난 기본적으로 고전 시가의 모든 어휘를 공부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특정 작품에만 나오는 시어도 있고, 비효율적이다. 물론 기출 지문의 어휘를 다 찾아보면서 외우려는 태도는 매우 좋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빈출되는 어휘가 보여서 스스로 잡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지문을 읽는 방식은...

무제

아는 한자 1-2개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좌우에 당전(唐氈) 깔고 담방석과 백전요며'

여기서 '당전'이랑 '담방석'과 '백전요'가 뭔지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방석이라는 단어도 알고, '요'라는 이불이라는 뜻도 알죠. 정말 극단적으로는 '깔고'만 보고 '뭔가 까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당연(唐硯)에 먹을 갈아 양호수필(羊毫鬚筆) 덩뻑 찍어'

여기서도 정확하게 아는 단어는 '먹'과 '찍어' 정도입니다.
'당연'은 아마 먹을 가는 벼루? 같은 것일 거고, '양호수필'은 '필'이라는 글자를 봤을 때 '붓' 같은 것이겠죠.
먹을 찍는다는 근거도 있고.

저도 필수적인 어휘는 압니다.
하지만 특정 지문에만 나오는 특수한 어휘와 고사를 전부 외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5개년 수능 기출만 (고전 시가 10편도 안되는) 이런 식으로 어휘를 다 정리해보세요.

불가능하다고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정말 필요한 공부만 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종략 이전의 내용을 정리하면, '중국 사신과의 만남과 소통' 정도로 주제가 범하겠군요.
종략 이후도 봅시다.

항상이 상을 주사 예부상서 거행한다
삼 사신과 역관이며 마두와 노자(奴子)까지
은자며 비단 등속 차례로 받아 놓고
삼배(三拜)에 구고두(九叩頭)*로 사례하고 돌아오니
상마연* 잔치한다 예부에서 지휘하기로
삼 사신과 역관들이 예부로 나아가니
대청 위에 포진하고 상을 차려 놓은 모양
메밀떡에 밀다식에 걸밤 머루 비자(榧子) 등물(等物)
푸닥거리 상 벌이듯 좌우에 떠벌였다
다 각기 한 상씩을 앞에다 받아 놓으니
비위가 뒤집혀서 먹을 것이 전혀 없네
삼배주를 마시는 듯 연파(宴罷)하고 일어서서
뜰에 내려 복향하여 구고두 사례한 후
관소로 돌아와서 회환(回還) 날짜 택일하니
㉔사람마다 짐 동이느라 각 방은 분분하고
흥정 외상 셈하러 주주리는 지저권다
㉔장계(狀啓)를 발정(發程)하여 선래 군관(先來軍官) 전송하고
추칠월 십일일에 회환하여 떠나오니
한 달 닷새 유하다가 시원하고 상연(爽然)하구나

무제

천일방(天一方) 우리 서울 창망하다 갈 길이여
풍진이 분운(紛紜)한데 집 소식이 돈절하니
사오 삭(朔) 타국 객이 귀심(歸心)이 살 같구나
송문문 내달아서 통주로 향해 가니
㉠을 적에 심은 곡식 추수가 한창이요
서풍이 삼삼하여 가을빛이 꽤히 난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황상’이 사신들을 보내는 장면과
사신들이 서울로 돌아오는 장면.

제가 종략 이전에서 했던 것처럼, 모르는 어휘를 찾지 말고 추론하는 연습을 해 보세요.

㉠장계(狀啓)를 발정(發程)하여 선래 군관(先來軍官) 전송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포인트네요.
충분히 부딪치고 생각하신 이후에, 문제 해설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③ 문제 해설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의 경이로운 풍광에 대한 감상을 장황하게 서술하고 있다.
- ② 학문과 관련된 사물을 나열하여 입신양명에 대한 화자의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객지에서의 낯선 풍물 및 경험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고 회환할 때의 심정을 서술하고 있다.
- ④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한 다양한 사람들의 외양과 감정을 개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구체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제시하여 귀국까지의 여정이 마무리되었음을 알려 주고 있다.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생각해봅시다.

종략 이전은 ‘중국 사신과의 만남과 소통’이었고, 종략 이후는 ‘황상과의 이별과 귀환’이었죠.

표현법 + 내용 문제는 내용 부분에서 주제가 출제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은 자르는 것이 맞습니다.

4번은 그냥 교과서, EBS만 대충 본 학생들을 죽이기 위해서 낸 선택지입니다.

5번을 정말 질문을 많이 받는데, 작품의 끝을 봤을 때 여정이 마무리되었다고 확정짓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가을빛이 난다는 것이, 곡식이 여문 모습이 보인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조선이 보이니까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은 비약입니다.

조선에 도착한다고 여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보고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집 근처라도 가야 여정이 끝난 거지... 답은 3번입니다.

44.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이 지닌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 ② ㉡ : 지시적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와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이동을 앞둔 여유로운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④ ㉠ :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새로운 계책을 마련한 기쁨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시간의 경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 문제는 답이 너무 명확하지만, 4번을 어떻게 날리는 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장계, 발정, 선래 군관이라는 단어는 고전 시가에서도 빈번하게 나오는 어휘가 아니라서 모르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 상태로 4번을 봅시다.

대구는 무조건 있죠. 그러면 새로운 계책을 마련해서 기쁘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계랑 발정은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나마 한자를 몇 개라도 아는 선래 군관을 보면, '먼저/오는/군관'

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군관'은 인간적으로 군사 관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관리를 먼저 조선으로 보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제 문장 앞 뒤의 맥락을 읽습니다. 장계와 발정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요.

짐을 꾸리고 떠나는 상황입니다.

'외상'을 장계와 발정으로 해결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개연성은 좀 떨어지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까지 잡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장계를 발정하여 = A를 B하여

이런 구조에서는 외상이라는 단어가 개입된다 하더라도 '돈 문제를 해결하여'까지만 나올 수 있고 감정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힘듭니다. 아니면 감정만 나오고 해결은 안 나오거나.

어떻게 생각해도 2가지 단어가 동시에 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답은 명확하게 5번입니다.

45. [A], [B]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에서 '간담을 상응하여'는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을, [B]에서 '뜰에 내려 복향하여'는 상대방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는군.
- ② [A]에서 '우리들'은 '거기 사람'에게 인사로 차를 대접받고, [B]에서 '삼 사신' 일행은 '예부상서'를 통해 황상의 상을 하사받고 있군.
- ③ [A]에서 '필담'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수단을, [B]에서 '구고두'는 의례적 상황에서 감사를 표하는 공식적 예법을 나타내는군.
- ④ [A]에서 '글귀 절로 오락가락'은 난처한 상황이 해소되고 있음을, [B]에서 '비위가 뒤집혀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드러내는군.
- ⑤ [A]의 '귀머거리 병어린 듯'은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B]의 '메밀떡에 밀다식에 곁밤' 등은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 놓은 상황을 알려 주는군.

마지막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담을 상응하여'를 모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A]의 맥락이 사신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

주제를 뒤집는 것이 정답입니다.